

책과 예술과의 만남 : ‘감상하는 책’, ‘8가지 책체험’ 전을 다녀와서

“책은 건축물이다. 그 속에 삶이 있고 응애된 시간이 있다. 건축물은 쓰는 것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짓는 것이다”

(송성재 호서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책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정신세계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창고이다. 비록 현대의 많은 책들이 독자의 진정한 필요보다는 다분히 자본주의적 필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해도 그 질적 수준에 있어서 인류의 어느 다른 생산물보다 깊은 애정과 찬사를 받아왔음은 모두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 좀 더 많은 것을 쉽게 공유하도록 한다는 기세 등등한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책은 점점 더 홀대를 받고 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많은 정보를 짚값에 담아 빨리 전달하려는 의도는 마치 자연의 내음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정겨운 시골마을을 각종 위락시설들로 가득 채워 버려 황폐한 마을로 바꾸어 버린 것과 같다. 지금! 책은 쇠퇴가 아니라 본연의 자리를 찾아 그 본질을 더욱 빛나게 할 때이다.



문틈으로 책과 예술의 절묘한 조화가 펼쳐진다.

요즘 새로운 시도로 일고 있는 예술과 책의 결합... 책이 대중에게 보다 세련되고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책을 읽고 싶은 욕망, 갖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이 점점 강조되는 추세이다. 예술과 책의 결합이 대중에게 책의 본분을 더 잘 깨닫게 하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잇달아 열린 ‘감상하는 책’과 ‘8가지 책체험’ 전시회는 책을 감상하고 체험함으로써 우선적으로는 책을 한결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감상하는 책’ 전시회는 책을 구성하는 내용(텍스트)과 더불어 책을 만드는 형식(이미지)의 미학적이고 개성적인 측면의 가치를 보다 강조하여 책을 일종의 조형 작품으로서 다루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책들은 관람자로 하여금 텍스트로서의 정보뿐만 아니라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형태까지도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등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관찰하고 만지며 감상함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경험하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였다. 전시된 작품은 가장 아날로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아티스트의 수공 작업부터 출판과 관련된 다양한 조형 활동을 동원하여 만든 작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함께 전시된 ‘웹북’은 적극적인 감상을 유도하는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감상하는 책’이란 새로운 접근 방식이 디지털의 전자매체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8가지 책체험’ 전시회는 정보와 지식을 이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매체인 책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진화해 갈 것인지, 책이라는 아날로그 매체가 현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변화하는 지식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 책이라는 매체가 당면한 존재론적 질문을 미술로 표현한 것이다. 인터넷 시대에 매개자로서의 ‘책’과 ‘예술가’의 역할과 매개 공간으로서의 ‘서점’과 ‘미술관’을 은유적으로 되짚어보고, 작가들의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이들의 현주소를 투영시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개방하여 책과 함께 떠나는 개인의 소중한 체험을 열어주었다. 또한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개별적 체험을 통하여, 인쇄물로서의 책이 나왔던 이전시대의 책의 역할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책의 개념을 다시금 생각 해보고 접근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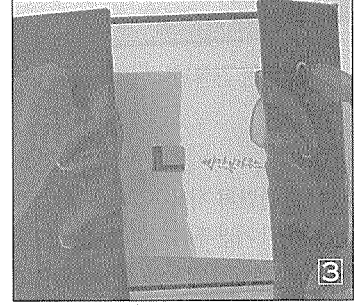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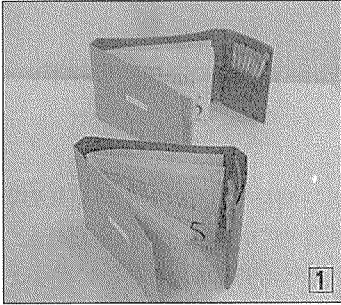
책의 불확실한 미래는 만져지는 것을 통해 다른 단서를 찾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수백 년 동안 지식의 창고로 자리 잡았던 책의 모습과 개념은 만지고 다루어지는 실재감을 계승하고 확장해갈 것이며, 또 새로운 매체들과도 변증적으로 새로운 영도를 열어가길 것이다. 사람들은 책을 정보 그 자체로서 바라보고 즐기게 될 것이다.

■ 글·사진 : 심효정(도서관문화 편집실)

1 책 감상

‘감상하는 책’

· 일자 : 2002년 7월 26일~8월 25일 · 장소 : 환기미술관(종로구 부암동)
· 참여작가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나미와 스튜디오 바프, 북아티스트 김나래



이나미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월간 <이브>의 편집장겸 아트디렉터 역임. 1995년 ‘Studio Baf’ 설립. <100파 시전 시리즈>, <빨간 블리우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등 다수의 아티스트 작품집과 북디자인 작업 진행. <http://www.baf.co.kr>

11 <일곱 성냥개비의 꿈>, 1999

1999년 바프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제작한 성냥갑 크기의 작은 아트북. 인테르센의 동화중 공작집 속의 다섯 공들이 세상으로 나가 경험하게 되는 서로 다른 삶에 대한 내용을 성냥개비에 비유하여 기적, 재구성 하였다.

12 <일과 바프를 하나로 집었습니다>,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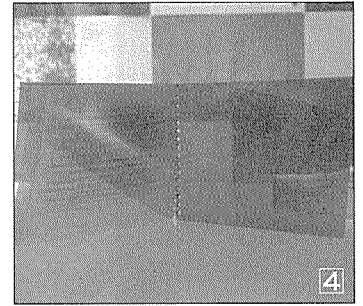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두 개의 작은 집단이 한 공간에 모여 저마다의, 또는 함께 하는 일을 도모한다면 그와 같은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잘 만들어진 하나의 ‘빨래집게’가 지닌 아름다움을 통하여 유난스럽지 않은 친근감과 확인할 필요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책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13 <빨간블리우스>, 1995

블리우스의 앞섭을 연출하듯 책의 표지에 달려있는 고혹적인 리본을 풀어 책을 열면 빨간색의 창문이 틀러있고, 그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면 누구나 빨간색의 광선만이 존재하는 차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독자를 자연스럽게 ‘행위’에 참여시키기 위한 설정이다. 행위예술가를 위한 책이라는 점을 이용, ‘책을 보다’에 해당하는 관객의 ‘행위성’ 혹은 책과 관객 사이의 발생하는 ‘상호반응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책이다.

14 <남아있는 97년을 위하여>, 1997

바프의 송년카드로 제작되었던, ‘투명한’ 책이다. 전통적인 책의 기본요소이며 필요충분조건이었던 페이지별 공간의 개별성, 혹은 화면의 독립성으로부터 벗어나 보기 위한 실험을 위해 종이대신 투명 필름지를 이용하였다. 마지막 페이지에(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모두 과거로 보낸 후), ‘모두에게 고요한 밤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적혀있다.



김나래 : 북아티스트, 명지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객원 교수.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런던 아트 북페어와 프랑크 푸르트 북페어에 참여. The London Institute 도서관과 옥스퍼드대 도서관에 북아트 작품 전시. 2002년 북아트 그룹전(Y Book 2002) 기획

15 Happiness AtoZ 2002

이 책은 ‘Happiness’라는 책의 텍스트를 알파벳 A에서 Z까지 구분해 책으로 만든 것으로 한 권당 한 문장씩 들어있다.

16 The Harmony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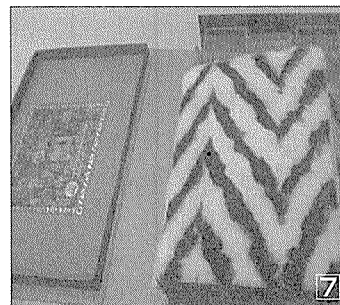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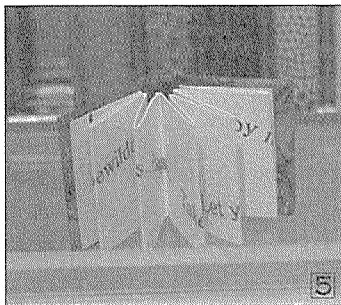
누구나 미래의 책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이다. 인터넷도 기호와 정보가 점점 다양화되며 종이 책을 위협한다. 그러나 종이책은 e-book과 함께 공존하며 미래에도 우리 곁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은 그 둘을 합쳐본 것이다.

17 결혼20주년기념 아트 북 2001

부모님 결혼 20주년을 맞아 뜻 깊은 선물을 해 드리고 싶어 만들었는데 개인의 기록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남긴다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18 Kid's talk 2000

Kid's talk이라는 책의 텍스트를 OHP film에 옮겨와 만든 책으로 두 권의 책을 분리해서 읽은 뒤 카드를 합쳐듯이 서로 합쳐놓는다.



2 책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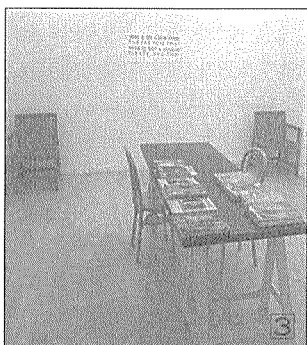
'8가지 책 체험' · 일자 : 2002년 6월 21일~7월 14일 · 장소 : 아티누스(마포구 서교동)
· 참여작가 : 실내건축가 송혜승의 7인



1 첫 번째 책 읽기 - 제목 : HHSS (Handsome Homo Sapiens Sapiens) (잘생긴 호모 사피엔스)
'책=시간' 자신의 삶을 이미지로 담은 셀프 카탈로그이다.
작가 : 시모네 까레나(건축가, 현 국제산업디자인 대학원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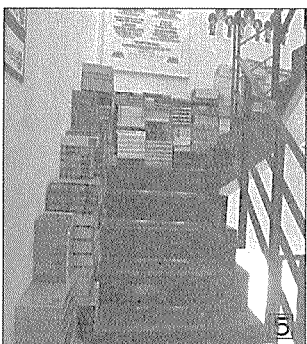
2 두 번째 책 읽기 - 제목 : 문(Door)
'책=공간' 책은 과거의 기억과, 오늘의 일상, 그리고 미래의 알 수 없는 순간까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삶의 모습들을 담아놓은 공간이다. 보여지는 여러 개의 문을 통하여, 다양성을 가진 '현재'의 공간을 읽는다.
작가 : 송혜승(실내건축가, 현 treegold Dir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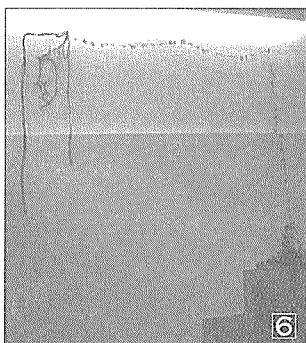
3 세 번째 책 읽기 - 제목 : Here is not a Book Store, Please READ this! Here is not a Museum, Please SEE this!(여기는 책방이 아닙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여기는 미술관이 아닙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책=보는 책과 읽는 책의 관계' 서점이 다른 장소에 놓여진 인쇄물의 의미와 역할을 말하고 있다.
작가 : 신희경(독일 뉘른베르크 아카데미 졸업, 현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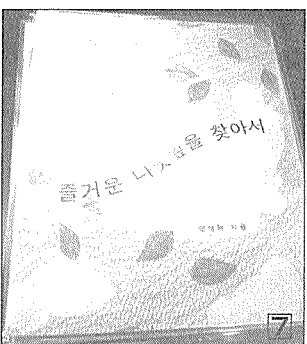
4 네 번째 책 읽기 - 제목 : You + I (너+나)
'책=측정 가능한/불가능한 혼적물' 사람들이 남긴 혼적에 의해 채워지는 책이다.
작가 : 이미혜(서울대 졸업, 독일 부리운슈바이크 조형미술대학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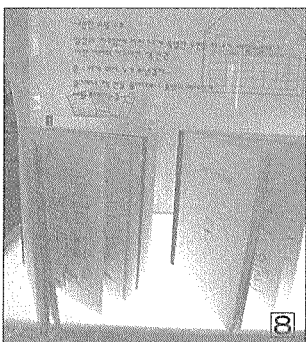
5 다섯 번째 책 읽기 - 제목 : Passage (통로)
'책=3차원의 공간' 책은 한 권, 한 권이 구축되어서 육중한 구조물이 되고, 그 구조물은 실제공간을 구축한다. 사람들은 어느새 자신이 책으로 이루어진 벽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잊고 있던 책의 또 다른 실체를 보게 된다.
작가 : 조경란(서울대 대학원 졸업)



6 여섯 번째 책 읽기 - 제목 : Beginning of the story (이야기의 시작)
'책=패브릭 텍스트' 책에 담긴 텍스트를 언어로 보고 있다. 이야기는 우리의 몸과 동일하며 그것 위에 옷이 얹히듯 글자들이 책이 가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작가 : 권혁(홍익대 대학원 졸업, 미국 클렘부룩 아카데미 MFA, 현 한국중합예술대학교 강사)



7 일곱 번째 책 읽기 - 제목 : Selling Cyber World- Looking for the happy leaf(가상공간을 팝니다. -즐거움 나뭇잎을 찾아서)
'책=상상' 책을 지식과 정보를 담아두는 그릇이 아닌 개인의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열어주는 매개자로서 보고 있다.
작가 : 안성희(홍익대 동대학원 졸업, 영국 첼시 컬리지 오브 아트 석사, 현 경원대, 서울예술대 출강)



8 여덟 번째 책 읽기 - 제목 : One Fine Day (어느 화창한 날)
'책=정보의 전달' 책을 정보전달체제로 읽고 있으며 오늘, 단순한 정보가 아닌 창조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전달을 시도하고 있다.
작가 : 정자현(이화여대 대학원 졸업, 현 엔써소프트 웹 디자이너)

interview - 감상하는 책의 작가 이나미와 스튜디오 바프, 김나래



이나미의 스튜디오바프



(左)김나래와 런던아트 북페어 때 만난 영국작가(右)

책을 소재로 더군다나 보는 것이 아니라 만지는 개념을 전제로 한 전시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한 말씀, 또한 책을 소재로 한 전시회를 통해 느낀점이나 좋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나미 : '책'과 '관객' 사이에 설정된 '관계'에 대한 재조명을 통하여 책은 단지 읽기 위한 여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어루만지는 가운데 관객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김나래 : 만지고, 보고, 감상하는 책 이것이 바로 북 아트의 매력 아닐까 생각한다. 일반 책들이 지식과 교양을 전수 받고 책꽂이에 꽂혀 있다면, 북 아트는 책이 아니라 작품으로 장식장이나 선반 안에서 주로 작품으로 취급받는다. 만지는 개념을 전제로 전시회를 한 것은 평면적인 회화작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페이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지지를 못해서 그 많은 페이지들 속에 이야기들을 놓쳐버린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내용 외에도 종이 또한 대부분 직접 폐지를 불러 종이죽으로 갈아서 만들었다. 종이에 녹차잎, 자스민 차 잎 등을 넣어서 향기가 좋다. 그래서 감상하고 그 향기를 음미하는 즐거움도 제 책을 보는 즐거움중의 하나이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 그동안 한국에 와서 몇 번의 전시를 하는 동안 책을 소재로 한 전시회를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북 아트가 제 전공이라서 책으로 보여주기도 했지만 관객들이 책이라는 소재를 참 좋아하고 친숙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아마 집에 책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을 것이고 항상 지니고 보다보니, 그것을 통해 작품으로 보여주어도 전혀 거리감이 없이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사람들에게 나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조각이나 회화작품이라면 감상하고 좋은 감흥을 받았겠지만 책이라는 소재다 보니 어린이에서 어른들까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감상하는 책이란 새로운 접근 방식이 디지털의 전자매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이나미 : 전자매체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담는 그릇'으로서, 책은 '소유하고 감상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각각의 역할이 보다 특징적으로 구분되리라 생각한다.

김나래 : 대학원에서 쓴 논문은 앞으로의 책의 방향이었다. 앞으로 전자북과 종이 북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기술했던 생각이 난다. 그때는 전자 북, e-book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이었다. 종이 북은 미래에도 계속 존재하겠지만 지금과 같지만은 않을 것 같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예전에 비하면 인터넷 웹 서핑으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얻다보니 책을 조금씩 멀리한다고 하지만, 책의 구조(structure)를 다양한 형태로 이끈다면 그런 고민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서는 책등에 형광등을 넣었다거나, 튜브 속에 들어간 책, 커버를 나무 소재로 씌운다든가 하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책의 시선을 끌며 책이란 친근한 벗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나의 작업도 종이 책 대신 OHP필름소재를 이용해 내용을 넣는다거나, 텍스트가 전혀 없는 감상하는 책, 등 색다른 재료와 책의 구조를 선보였는데 아마 앞으로 미래의 책의 모습들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이런 책을 소위 좋은 형태로 변형시키는 이런 일들이 도서관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나미 : '공부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책뿐만이 아니라 같이 노닐기 위한 용도(즉, 감상하는 책이 되겠네요)의 책들이 하나의 서가를 이루게된다면 어떨런지요. 책에 대한 관객의 생각이 넓어지면서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 역시 보다 문화 예술적으로 폭 넓어지지 않을까?

김나래 : 북 아트는 런던의 경우, 테이트 갤러리,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의 도서관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곳 미술관 안의 도서관들은 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북 아트 작품들을 매년 컬렉션 하면서 관람객에게는 하루에 4권 이하로 대여도 해

준다. 그러나 외부 유출은 아니고 책상에 앉아 감상 혹은 플레쉬 없이 사진 촬영도 허용된다. 나도 방학이면 항상 가서 작품들도 보고 촬영도 하곤 했다. 이렇듯 영국의 경우 책은 일반 책과 북 아트 책 두 가지로 나뉘져 있다. 북 아트작품들도 찾기 쉽게 도서 분류표와 컴퓨터 검색으로 원하는 작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학 도서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맨체스터 대학도서관은 예약을 하고 가면 마음껏 북 아트 책을 볼 수 있는 방식 도서관 안에 따로 있다.

도서관에서 작품전시회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나미 : 도서관+책전시는 아주 적절한 조합이 될 듯 하다.

김나래 선생님은 이미 해외 도서관에 작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작품들이며 어떤 계기로 도서관에 작품이 전시되었는지요? 또 한국의 도서관에서 책 전시회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김나래 :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술관 안의 도서관에서 런던 아트 북 페어 전시 때 북 아트 작품을 사러 오시는 경우도 있고, 많은 북 컬렉터들이 있어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다. 나의 경우는 런던에서 전시를 통해 사러 오셔서 판매를 하게되었다. 나는 도서관에서의 북 아트전시도 상당히 뜻 깊다고 생각한다. 책과 북 아트는 시작의 기원이 똑같이 하나의 역사에서 출발했고, 근래에 들어 방향이 나누어 졌는데 관람객들에게 두 가지의 책 스타일을 한 곳에서 보여드리는 것도 뜻 깊고 북 아트를 쉽게 다가가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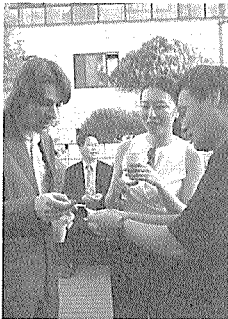
앞으로의 책 전시 계획은?

김나래 : 앞으로의 계획은 매년 3월에 "YBook" 전이 인사동에서 있다. 올해 3월에 처음 개최되었는데 반응이 좋아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기획자 중 한 명인데 작품 추천, 장소 섭외 등을 한다. 또한 내년 가을에는 런던 북 페어도 참여할 계획이다. 제작년에 참여했었는데 반응이 좋았고, 주로 내가 강의하는 명지대학교 학생 위주로 출품했는데 내년에는 바프와 같이 할 계획이다.

interview - '8가지 책 체험'의 전시기획을 맡은 실내건축가 송혜승

Q : 책체험이라는 소재로 전시회를 열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A : 이번전시회는 treegold라는 International Artist & Designer's Network가 기획한 전시회로 각 분야의 작가, 디자이너, 건축가들이 참여하였다. 미술관이나 화랑을 벗어나 예술과 디자인이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공유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도심 속의 건축물에 있는 '유리'를 소재로 전시했으며 올해는 '책'을 소재로 선정했다. 책을 소재로 선정한 것은 인터넷시대에서 '인쇄상의 책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 것이다. 만화책도 인터넷으로 나오는 시점에서 책은 단순히 지식 전달 이상의 의미가 모든 개개인의 삶 속에 묻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8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시선으로 개인의 삶 속에 존재하는 책에 대한 의미와 생각, 기억, 추억 등을 이야기 한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상상력면에서는 책이 보는 비디오 문화에 많이 밀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전시는 인쇄상의 책이 먼 미래에 박물관에 보관될 소장품이 되기 이전에 그 속에 담긴 정신과 상상력을 되짚어 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론을 '예술과 책', '미술관과 서점'을 통해 은유적으로 접근했다. 이번 전시회는 또한 기존의 미술관이나 화랑에서 전시되어 그 한계와 관람 층이 극히 제한되었던 반면에 나름대로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서점의 모든 구석구석 공간에 전시를 했다는 점이 특이했다고 생각한다.



〈건축가 시모네 까레나, 실내건축가 송혜승, 신흥경교수 (좌로부터)〉

Q : 책 전시회를 도서관에서 해봄은 어떠신지?

A : 기획이 되면 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스폰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웃음)